

고난 주간 토요일 아침

본문 - 매일성경 마가복음 15장 33-47절

#1.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 1

37-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인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아픔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 2

39절. "...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40-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백부장.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 본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 이것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군인 백부장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다수의 여인들도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3.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 3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 빌라도에게 ..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요셉을 도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요 19:39).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감싸서,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둘 역시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4. 에필로그

부활의 영광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찾아 옵니다.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할 증인들은 차고 넘칩니다.
동시에 이들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우리는 내일 부활주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